

제3절 최산두(崔山斗)의 생애와 역사적 위치

1. 출생

최산두는 1483년(성종14) 4월 10일,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한영(漢榮)이고 어머니는 청주 한씨인데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꿈에 백운산과 북두칠성이 입을 통해 몸안으로 들어갔다 하여 백운산의 영기와 북두칠성의 정기를 나타내는 산두(山斗)라는 이름을 지었다 한다. 신재(新齋)라는 호는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자신이 스스로 지었다 한다.

2. 생김 모습



사진2-51 : 최산두 영정

제자 김인후의 ‘제문’에 의하면 ‘용’과 ‘뱀’의 모습이요,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이 좋았다고 한다. 그의 품은 뜻은 웅장하고 성격은 호방하며, 기개는 세상을 뒤덮을만 하다고 하였다. 문장은 양자강 협곡의 삼협(三峽)물을 쏟는 듯 하고 붓글씨는 신필에 가깝다 하였다. 술을 대하면 거나하고 바둑도 명인인데다, 활도 잘 쏘아 어느 것 하나 못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3. 학문 수학파 사람파(士林派)

1) 어려서는 옥룡면 산남리에 있는 주부(主簿) 서극수(徐克綏)선생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1496년(14살)에 그의 사위가 되어 자(字)를 경양(景仰)이라 하였다. 15살 때는 옥룡면 동곡리 깊은 산골 ‘백류동’ 계곡의 큰바위 (후에 스스로 ‘학사대’라 이름 지었음) 굴속에 들어가 2년 동안 『근사록』, 『자치통감강목』(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송나라 ‘주희’가 1172년에 정통·비정통을 분별하고 대요와 세목으로 나누어 엮은

책) 등 80권을 1,000독을 하여 성리학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으며, 17살때는 평안북도 회천에서 순천시로 이배(移配) 되어온 김굉필¹⁾ 선생을 ‘옥천사’로 찾아가 제자가 되어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실천궁행하는 왕도정치의 학문을 몸에 익혔다. 18살 때는 상경하여 젊은 사람이었던 조광조, 한충, 김구, 김식, 김안국, 김정국 등과 더불어 매일같이 사귀며 교류하고 경학(經學)을 탐구하니 이들을 일러 낙중군자회(洛中君子會)라 하였다.

1) 김굉필은 회천에 있을 때 이웃고를 ‘어천’ 잘방(察訪)으로 부임하여온 아버지를 따랐던 17살의 조광조를 제자로 길렀었다.

2) 사림파와 왕도정치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으나 조선조는 국교를 유교로 정하였다. 고려말에 정치가 부패하자 신흥 유학자들이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개혁을 하고자 이성계를 밀었으나 막상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며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으로 순절을 택하고, 정도전은 이성계를 옹립 하고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총지휘하여 조선조의 기틀을 튼튼히 다진다.

그러나 후대 사림파(士林派)들은 정몽주의 절의(節義)와 살신성인 정신과 길재의 청절(淸節)과 일편단심(一片丹心)의 충절(忠節)을 받아들여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으로 그 학통과 맥을 이어 내려온다. 이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11대 왕이 된 중종(中宗)때에 훈구세력들과 맞서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다가 1519년(중종14)의 기묘사화(己卯土禍)로 인하여 실패한다. 최산두도 이 개혁정치의 선두에 섰다가 유배생활로 생애를 끝마친다.

4. 과거 합격과 벼슬

22살 되던 1504년(연산군10) 8월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시험답안지는 강목부(綱目賦)로 유명하여 후대에까지 학자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글이다. 이때부터 성균관에 들어가 9년 동안 많은 신진사류들과 교류하고 고금의 서적들을 탐독함으로써 그의 학문이 일세에 뛰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최산두, 유성춘, 윤구 등을 호남 3걸(傑)로 불렀고, 후학들이 글을 읽다가 그 뜻을 모르면 자주 와서 물었다고 한다. 31살 되던 1513

년(중종 8년) 봄 2월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1514년에 홍문관 저작(著作)이 되었다.

1515년(중종 10년) 홍문록을 중선(重選)하는데 대간(臺諫)이 김선, 최산두, 박전, 조한필은 문벌이 변변치 못하므로 빼자고 하였는데 임금이 “그것을 기록할때 어찌 함부로 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이에 사신(史臣)이 다른 이름은 빼어도 되지만 최산두만은 출신은 변변치 못할지라도 덕행이 있고 문장(文章)이 있으니 그냥 두어도 좋겠다고 하였다.

1516년에 박사(博士), 1517년에 수찬(修撰), 정언(正言)·사헌부 지평(持平)·교리(敎理) 등을 역임하고 일시 보은 현감으로 나가 있기도 하였다. 그후 사관원 헌납(獻納)이 되었다. 1513년(중종 13년) 승정원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 강의할 사람 26인을 뽑는데 그가 첫째로 뽑혀 호당에 들어갔다. 이때 중종이 “일인유경보명유신”(一人有慶寶命維新. 임금이 착함이 있으면 천명(天命)이 새로워져서 국운이 영원 하리라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글)이라는 옥홀(玉笏)을 내려 주었다. 1519년(중종 14년) 9월 그의 나이 37살 때 사헌부 장령(掌令)에 올랐고 곧 이어 의정부 사인(舍人, 정4품)에 올랐다.



사진2-52 : 옥홀

5. 유배생활과 제자 육성

그러나 그해 1519년 11월 15일에 홍경주, 남곤, 심정 등 훈구세력들의 모함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광조는 화순 능주로 유배 되어 사약을 받았고, 최산두는 화순 동북으로 유배되어 14년동안 인근 유생들을 모아 자신들이 못한 성리학과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이상을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여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과 같은 큰 학자를 길러냄으로써 그의 충절(忠節)과 절의(節義)의 정신이 호남지방에 이어 내려와, 임진왜란과 같은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정신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정다산이 18년 동안 강진 적소에서 『목민심서』 등 500권의 책을 써서 실학사상을 완성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최산두는 동북의 적소에서 후진들에게 도학사상을 가르쳐 대유학자들을 길러내고 성리학을 호남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교육자요, 사상가요, 경세가였다고 믿어진다.

6. 사망과 추모사업

1) 사망

제자들을 가르치다가도 때때로 ‘적벽강’ (지금은 댐이 되었음)을 찾아 시를 읊어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으나, 매일 깊은 밤이 되면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북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함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근본이요,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입니다”고 하였다.

51세되던 때에 영의정 장수손의 건의로 14년간의 유배생활에서 풀려났으나 이미 몸이 극도로 쇠약하여 동북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1536년(중종 31년) 4월 14일에 54살을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당시 화순 현감이었던 임억령이 장례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고 광양, 순천, 구례, 남원, 보성, 고흥 등 수령들이 호상이 되어 고향인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뒷산 화전봉(花田峯) 밑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밑에 장례를 치러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사진2-53 : 신재 최산두 선생 묘소

2) 추모사업

1578년(선조 11년)에 광양현감 정숙남(鄭淑男)이 선생의 학덕과 절개를 숭모(崇慕)하여 봉양사(鳳陽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고 1666년(현종 7년)에 전라남도 우림들이 동북에다 도원서원(道源書院)을 세우고 최산두, 임억령, 정구, 송방준 등 4분의 어진분을 모셔 제사지냈으며, 최산두에게는 문절선생(文節先生)이라는 사시(私諡)를 지었다. 1687년(숙종 13년)에 이 서원에 사액(賜額. 임금이 이름을 지어줌)이 내렸다.



사진2-54 : 봉양사

최산두는 생전에 「백류동기(白流洞記)」, 「학사대기(學士臺記)」, 「백운암유산일기(白雲庵遊山日記)」, 「옥룡사비문(玉龍寺碑文)」, 「송천사비문



사진2-55 : 도원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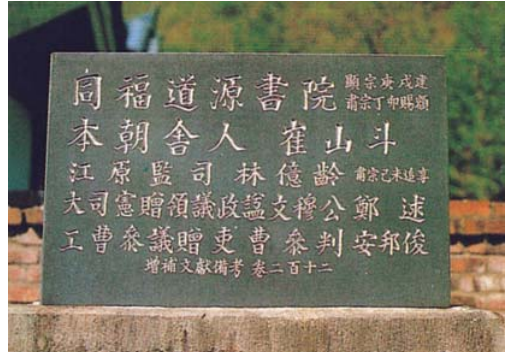


사진2-56 : 도원서원 입구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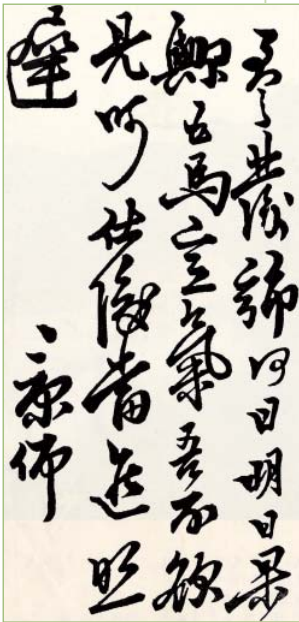


사진2-57 : 신재 최산두 선생의 친필

(松川寺碑文)», 「석굴기(石窟記)」 등 동북에서 15년간 쓴 글들이 실로 많았으나 모두 병란(兵亂)으로 없어졌고 친근히 교류하였던 분들의 문집등에서 찾아 모아진 글이 현재 부(賦) 1편, 한시 18수, 편지 11편만 남아 전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7. '최산두' 선생이 광양에 미친 영향

우리 광양은 신라말과 고려초기의 8세기 무렵에는 '도선국사'가 있어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9세기부터는 김책, 김황원 같은 큰 유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묘사현(己卯士賢)이며 호남3걸(三傑)의 으뜸이었던 최산두 선생의 사림(士林) 정신과 도학(道學) 사상과 성리학(性理學)과 '충의(忠義)와 절의(節義)' 정신이 우리고장 유림들과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정신문화의 유산이 되어 왔었다고 보아진다.

선생이 41세 때에 광양 봉강출신 소암(素庵) 허억부(許億富)가 선생이 머무르는 동북에 찾아가서 직접 학문을 배워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서도 선생의 사상과 학문이 우리 광양에 맥을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는 황매천 선생의 우국충정과 의(義)로운 학문이 그 맥을 이었다. 나가서 호남을 의로운 고장으로 만든 것도 최산두 선생의 학문과 정신이 김하서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제(祭) 최신재 제문(崔新齋 祭文)

가정(嘉靖) 17년 (중종 33년, 1538) 무술(戊戌) 4월 갑신삭(甲申朔, 初) 14일 정사(丁巳)에 문인 진사 김인후(金麟厚)²⁾는 삼가 두 번 절하고 술과 제물로써 신재 최선생의 영전에 제를 올리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재 최선생의 영(靈)은 높은산 큰 늪에 '용(龍)과 범(虎)'의 모습이요, 큰 키에 아름다운 수염, 신골이 뛰어나고 기이했네(魁奇). 물결(流波)에 휩쓸려도 닦이거나 물들지 않으며 막힘없이 환하게 터져서 시원스럽고 웅장하며 호방하여 가슴 속은 바람과 달, 문장은 양자강 종류의 경승지이며 협곡인 삼협(三峽)물을 쏟는 것 같고 기개는 세상을 뒤덮네! 붓 휘둘는 그 천지에는 바람 놀라고 귀신 치닫고, '금노끈 쇠새끼(金繩鐵索)'는 위로 의현(義軒, 황제헌원(皇帝軒轅)씨와 복(伏)의씨)과 맞닿았네. 드날리는 행서초서(行書草書) 깃과 털(羽毛)이 대롱대롱, 술 대하면 거나하고, 바둑 두면 질탕하네. 활 당기기, 화살 쓰기, 어느 것을 못하리까? - 中略 -

내 처음 뵈은 해는 헤어보니 정해(丁亥, 중종 22년 1527, 17살 때)로세. 검중(黔中)에 술을 싣고 서로 만나 기탄없이 천고(千古)일을 이야기하며, 쌓아놓은 책 펼쳐놓고 두세명의 제자(君子)들이 서로 함께 추종하며, 황혼되면 한번 시험, 큰 의원(醫員, 병자가 의원에게 병을 고치듯이 학문의 의문점을 고침) 힘 입었소. 못작품 쓸어내고 굴원(屈原)³⁾ 사부(詞賦) 익히기만 25편, 간비(肝脾, 간장과 비장, 즉 마음속) 속에 역력하여 솟구치는 슬픈 생각(哀怨). - 中略 - 그대로 두루마리(卷軸)들고 좋다, 궂다 품평 받아, 단편에다 장편에다 지령이와 이무기라, 거친 뉘살 갈아 슬고 털과 거죽 빌려주며 모모(姆母) 무염(武鹽)⁴⁾ 화장시켜 서시(西施)에게 견주나니 끌어주고 올려주어 날로날로 부지런히 단점 덮고 장점 키워 조랑말을 천리마로 내성글고 우활(迂闊, 세상 사정이 어둡고 미처 생각이 못미침) 하여 글솜씨 졸렬치만 남다르게 허여(許與, 허락하여 칭찬함) 하여 쇠가 자석 만난 듯이 쌓인 의문 풀어주니 무지한 몸 행(幸)이었네. 태학(太學)의 제생(諸生)되니 유사(有司)에게 팔렸으나 임진년에 경례(慶禮)가 파했기로 행랑애와 명(命) 청하고 뜨락에 기다리니 가벼운 옷에 막대 끌고, 나자마자 웃으시며 나는 새로 여기 왔네, 요새 우선 어떠한가? - 中略 -

염(殯)할 때도 참여 못하고 장례에도 상여 못메고, 상기(祥期)가 닳쳐어도 몸소 제사 못 모셨소. 멀리 제물 장만하여 이를 전해 올립니다. - 中略 - 저 공중 두루 돌며 티끌세상 굽어보고, 병실병실 웃으리다. 초사부(楚些賦)에 비기노니 신(神)이시여 천천히 내려 흥향하시길 바랍니다.

2) 김인후(金麟厚): 장성 출신으로 유희춘(柳希春)과 같이 화순 적소(諫所)에서 최산두에게 도학을 배운 제자임. 호남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공자사당에 모셔진 대 유학자. 유희춘의 제문도 별도로 있으나 지면관계로 여기서는 소개하지 못한다.

3) 굴원(屈原): 楚나라의 우국지사로 초사(楚辭)라고 하는 운문(韻文) 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인. 회사부(懷沙賦)를 읊고 먹나수에 빠져죽음

4) 姆母, 武鹽: 열녀전에 '모모'는 皇帝의 妃인데 얼굴은 추(醜)하나 어질었다 했으며 '무염'은 齊나라 선왕(宣王)의 후(后)인데 추녀(醜女)였으나 미녀인 서시(西施)를 견주었다 함